

2025. 10. 2.(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서준원	02-2133-8326
도시공간포털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5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5건

○ 수정가결 : 4건

○ 보 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산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 2025. 10. 1 (수) 14:30 】

■ 총 5건 (수정가결 4, 보류 1)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 고
1	<공동주택과> 목동1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1번지 일대 (165,496.9㎡) ○ 내 용 :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사업팀 팀장 : 김성화 담당 : 정훈희 (2133-7286)
2	<공동주택과> 목동2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2번지 일대 (159,252.5㎡) ○ 내 용 : 목동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사업팀 팀장 : 김성화 담당 : 정훈희 (2133-7286)
3	<공동주택과> 목동3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3번지 일대 (150,543.5㎡) ○ 내 용 : 목동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사업팀 팀장 : 김성화 담당 : 정훈희 (2133-7286)
4	<공동주택과> 장미1·2·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257,570.9㎡) ○ 내 용 :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보류	<신규상정> 리모델링팀 팀장 : 조기석 담당 : 홍인철 (2133-7146)
5	<공동주택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경관심의(안)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동 369-1번지 일대(399,595.1㎡) ○ 내 용 : 압구정 3구역(압구정 현대 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등	수정가결	<재상정> 재건축정책팀 팀장 : 장지광 담당 : 이승환 (2133-7147)

2025. 10.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재건축사업팀장

김성화

2133-7296

목동 1~3단지 정비계획 확장·목동14개단지 4만7천세대 공급 기반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목동1·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용적률 300%, 최고 49층 1만206세대(임대1,207) 공급계획, 각 단지 학교연계 근린공원 조성
- '22.10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적용..정비구역 지정 통상 5년→평균 1년9개월로 단축
- 목동지구 14개단지 26,629가구가 거주...기존대비 1.8배인 47,438호 대규모 공급 계획
- 기성사가지 연계 가로중심 주거 조성, 공공시설 13곳 확충...신속기획2 적용 조기착공실현 목표

☐ 양천구 목동 1·2·3단지 아파트가 최고 49층 규모 1만206세대(공공주택 1,207세대 포함) 대단지로 재탄생하면서 목동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 서울시는 10월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1·2·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지 1만 206세대 공급... 공공주택 1,207세대 포함>

☐ 목동 3개 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 최고 49층으로 계

획됐다. 먼저 목동1단지는 3,500세대(공공주택 413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한다. 반경 500m 내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린공원, 월촌초 인접 등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학교·저층주거지와 연계한 약 1만 500 m^2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생활 편의와 쾌적성을 동시에 높인다.

□ 목동2단지는 공동주택 3,389세대(공공주택 396세대 포함)로 계획됐으며, 용왕산근린공원과 파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 신목중 인접 등 정돈한 주거환경을 특화한다. 약 1만 250 m^2 규모의 근린공원과 더불어 출산·양육 친화 공공지원시설 약 3,870 m^2 등을 마련해 젊은 세대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을 강화한다.

□ 목동3단지는 공동주택 3,317세대(공공주택 398세대 포함)로 재구성되며, 양천도서관·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과 파리공원, 국회대로 공원 등 주민휴게시설 접근성을 살린다. 저층주거지와 연계한 1만 m^2 근린공원과 기존 어린이집 재건축 등 기반시설을 보완해 세대 간·세대 내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한다.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응하는 공공성 강화...가로중심 보행로·녹지축, 열린단지 조성>

□ 목동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은 차량중심·폐쇄형 단지구조에서 벗어나 단지 내부 보행축을 외부 가로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변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축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5분 녹지 접근’을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특

성을 반영해 통로와 도로변 곳곳에 자전거도로와 주차공간을 배치해 일상적 보행·자전거 이동성을 높인다.

- 경관 측면에서는 저층(7층 이하), 중저층(15층 이하), 고층이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해 원경·근경에 조화를 꾀했다. 가로변에는 연도형 저층주거(7층)를 배치해 보행자의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고,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권장구간을 설정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중심가로 주변은 보행친화형 상업가로 유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끌어올린다.
-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지 내·외부를 아우르는 기반·공공시설 13곳(연면적 총 80,165㎡)을 확충한다. 데이케어센터, 공공청사, 어린이집 등 돌봄·행정 인프라를 보강하고, 도로는 1.5~3m 이상 확장해 차량흐름을 개선한다.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2개소를 계획해 인근 기존 시가지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평균 1년9개월만에 정비계획 확정..4만7,438가구 공급>

- 사업 추진 속도 또한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대폭 향상됐다. 2022년 10월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최초 선정 이후 모든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적용, 통상 5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4개 단지 평균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정비계획 절차를 통합·병행 관리한 결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민 체감 속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목동 14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의지로 단기간에 6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가 추진한 제도개선에 발맞춘 자치구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시의회와의 협력, 시·구 협업 공정관리가 맞물려 사업기간 단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에는 현재 2만 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속도감 있는 재건축 시 1.8배 많은 47,438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증가분 20,809가구 중 공공주택이 6,104세대에 달하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52세대도 포함된다.
- 목동 재건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 현장 방문 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힌 지역으로 시·구가 협력하에 대표적으로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1년 9개월 소요되는 만큼 8단지·12단지는 2.5개월 만에 추진위 승인, 6단지는 9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는 등 다음 단계도 빠르게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목동1·2·3단지는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공급 촉진방안에 이어 신속통합 시즌2 계획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속적인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목동1·2·3단지 위치도 및 재건축현황, 조감도 각 1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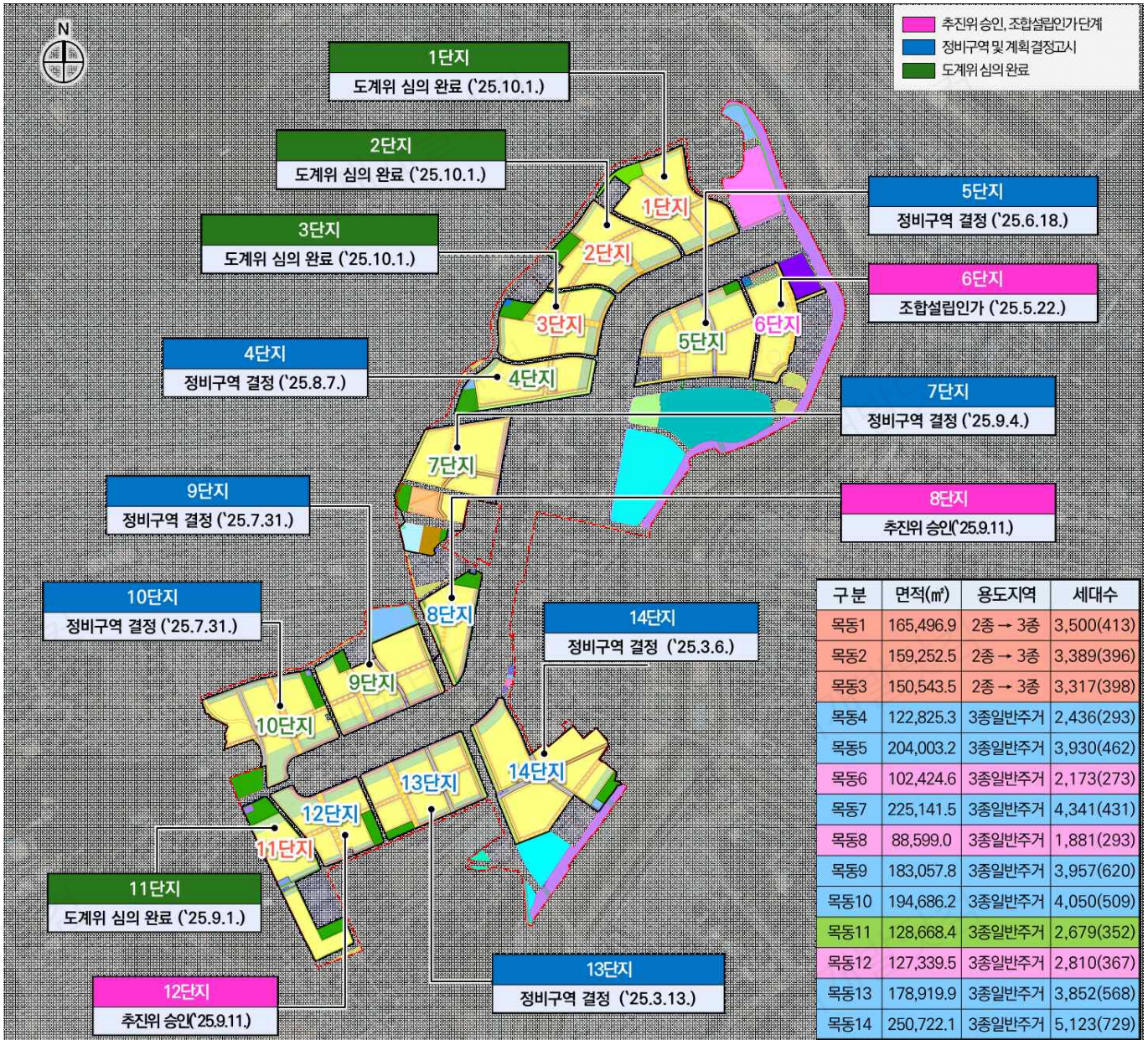
위치도, 재건축 현황

□ 목동1·2·3단지 위치도 (양천구 목동 901,902,903번지 일대)



□ 목동재건축 현황

- 위 치 : 양천구 목동·신정동(약 228만 m²)
- 용도지역 : (1~3단지)제2종일반주거, (4~14단지)제3종일반주거
- 단지현황 : 총 14개 단지, (기존)26,629세대 (계획)47,438세대(임대 6,104)



□ 목동 전체 조감도



※ 모형예시도(색감 AI인공지능 사용)

2025. 10.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2133-7136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82년 준공, 42년만에 최고높이 250m, 공공주택 641세대 포함 5,175세대로 재건축
-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이용하여 누구나 한강공원으로의 접근 용이
- 담장 없는 열린단지 계획, 경로당·어린이집·작은도서관·돌봄센터 외부개방운영

☐ 서울시는 2025년 10월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구역(2~5구역) 중 3구역이 마지막으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압구정3구역은 1978년 준공 이후 42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및 최고높이 250m(랜드마크 2개동에 한함/나머지 주동들은 200m 이하, 50층 이하) 이하, 총 5,175세대(공공주택 641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차혼용통로는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린단지 개념을 적용하여 담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향후 압구정3구역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고시를 거쳐,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치도 (강남구 압구정동 369-1일대)



□ 투시도 예시(안)

